

서울史料叢書 第十

國譯 荷齋日記 (六)

1900. 8. 1 ~ 1902. 8. 22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 해제(解題)

- 1900년 윤8월 1일~1902년 8월 22일의 내용을 중심으로 -

### I. 자료의 편철과 보존 상태

이번에 발간하는 《하재일기》 제6권은 규장각에 소장된 하재일기 전 9책 가운데 제7책(고 4655-44-7)에 해당되는 부분을 번역·탈초하여 펴냈다.

번역대상 원본 자료의 분량은 135매이고, 1900년 윤8월 1일부터 1902년 8월 22일까지 24개월 22일간의 일기이다. 이 기간 동안 필자는 단 하루도 빠지 않고 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안이 없는 날은 ‘맑음(晴)’이라는 날씨만을 기록하기도 했다. 표지 뒷면 여백에는 약방문(藥方文)을 적어 놓았는데, 지규식이 직접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 책에 그대로 수록하였다.

원본 자료의 보존 상태를 살펴보면, 표지는 줌으로 심하게 파손되어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이고, 표지 뒷면 쓴 약방문 글씨도 파손의 정도가 심하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어진 윤8월 초순 일기 내용 또한 군데군데 멸실된 글자가 많아 번역에 애로가 있었다. 윤8월 중순 이후로는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했다.

본 일기의 편철은 일기를 쓴 지규식이 직접 한 것으로, 마지막 장인 8월 22일 일기는 빈 공간을 남겨 놓았으며, 다음 권 8월 23일을 시작할 때는 ‘8월(八月)’을 넣어 새로 시작하는 권수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하재일기의 편철은 본인이 직접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일기에는 번자회사(燐磁會社)의 운영과 조기장(造器匠) 등 장인의 확보 문제, 무곡(貿穀) 거래, 자식과 며느리를 잃은 개인적 아픔

하재일기

등이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다.

## II. 주요 내용

### 1. 번자회사 운영과 미곡무역

#### 1) 번자회사의 운영과 수입금 분배

조선왕조 500여년 간 왕실 소용 자기를 구워 진상해왔던 사옹원 분원(分院)은 1883년 관청 선대제적 분원공소(分院貢所)로 전환되었다가, 1897년 근대적 번자회사(燐磁會社)로 재탄생하여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본 책의 대상 시기인 1900년 윤8월~1902년 8월에도 분원은 여전히 번자회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번자회사는 분원 자기의 주문과 판매를 총괄하고 있었으며, 수입금은 사원(社員) 9명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다. 이때 ‘사원’은 출자금을 낸 자본가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순히 임금을 받고 고용된 오늘날의 회사원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실제로 번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바로 9명의 사원들로서, 서울 사원과 분원의 현장 사원으로 나누어 있었다. 분원의 사원들은 그릇 만드는 장인(匠人)들을 고용하고, 화목(火木)과 백토(白土)를 구입하여 그릇의 제작과 판매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였다.

1902년 7월 궁내부 내장원에서는 도성 안 대동(帶洞)에 사요(砂窯)를 설치하고, 도토(陶土)를 간색(看色)하여 그릇을 제작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사원인 안정기(安鼎基)가 지규식에게 상경하여 그릇 만들 것을 청하였으며, 1902년 8월에는 서울의 가마 쌓을

장공(匠工) 손치서(孫治西)를 데리고 상경하였다. 손치서는 원래 부화(釜火)를 담당한 분원 장인(匠人)이었다.<sup>1)</sup>

번차회사는 자기의 생산과 판매를 총괄하고 있었으며, 이기간 동안 왕실에서 요구하는 주발·제기·접시 등 각종 그릇을 납품하고, 그 값을 받았다. 또한 국장도감(國葬都監) 소용 그릇과 지문(誌文)·명기(明器) 등을 제작·납품하였으며, 지식의 품질이 나빠 다시 구워 바치기도 했다.

1901년 4월에는 잔치에 쓸 진찬기명(進饌器皿) 3천죽을 제작하여 5월 15일까지 바치라는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 값은 16만여냥에 달하고 있었다. 또 어상(御床)에 놓을 접시를 일입기(一立器)로 만들어 올려 보내라고 명령하자, 분원에서는 일입기로는 절대 만들 수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영친왕궁에서도 자주 그릇을 요구하여 납품하였고, 운현궁에도 지석을 만들어 납품하였다. 정부의 기기국(機器局)에서 전선통(電線筒) 수천개를 주문하자, 분원에서는 기술자가 없어 만들 수 없다고 답하였지만, 그후 2천냥을 선불로 받고 전선통 1천개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분원은 정부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경우, 정부가 요구하는 그릇 제작을 거부하기도 했다. 1901년 6월에는 정부에서 외빈 연회에 사용할 외연(外宴)기명을 만들어 바치라고 명령했는데, 분원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정부는 공권을 동원하여 압력을 가하였으며, 결국 사원들이 협의하여 만들기도 했다.

분원은 일반 자기소(磁器所)에서 만들기 어려운 그릇의 제작을 담당하였다. 1901년 6월에는 전선사(典膳司)에서 임금의 어상(御床)에 쓸 만들기 어려운 용준(龍樽)·용병(龍瓶)·전자(篆字) 등을 분원에

1) <완문(完文)>(규장각 古 4259-44).

주문하였고, 만들기 쉬운 그릇은 양구(楊口) 방산점(芳山店)에 맡겼다.

번자회사로 전환한 분원은 왕실에 납품한 그릇 값을 받을 때 가능하면 높은 값을 받으려 하였다. 이에 적정가를 둘러싸고 설왕설래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그릇은 원하는 양식대로 만들어주되 값은 헐하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다.

여전히 종로 시전과 동대문 이현시장 등지의 상인들에게 분원 그릇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예전에 비해 그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중국·일본 등지에서 들어온 수입그릇의 증가와도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분원에서 만든 그릇을 직접 시장에 내다 놓고 판매하기도 했다.

그릇 거래에는 여전히 외상거래가 많았으며, 외상 값을 받아들이는데 관권을 동원하기도 했다. 1901년 3월에는 양근군에서 차사(差使)를 보내 그릇 값을 내지 않은 기상(器商)들을 수색하여 잡아갔는데, 그 가운데 장의준(張宜俊)·박원근(朴元根)은 지규식에게 애원하여 완납한 표를 받아 제출함으로써 풀려나기도 했다. 양근군수가 외상값을 갚지 않아 체포된 그릇장수들에게 “보릿가을[麥秋]까지 마련하여 갚으라”고 분부하고 석방하여 보내자, 분원의 지규식은 이를 매우 한탄하였다. 이를 보면 번자회사의 그릇 값 수납에 관권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번자회사는 수입금을 사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였으며, 주로 2월에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901년 2월 번자회사는 서울과 지방에서 회사로 들어온 수입금 11만 292냥 4푼을 회사원 9명에게 똑같이 12,240씩 나누어주었다. 이때 사장은 자신의 몫으로 들어온 12,240냥을 도로 내놓았다. 이를 보면 당시 사원 9명 중에는 사장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사장과 사원이 균등하게 수입금을 나누어 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02년 2월에도 회사에 들어온 돈 21,660냥을 회사원

9명이 각각 1,895냥씩 나누어 가졌으며, 사장은 자신에게 할당된 돈을 내놓아 나머지 8명이 237냥씩 나누어 가졌다. 1901년 2월초에는 회사 사장이 사원들에게 각각 북어 6두름씩을 선물로 내려주었다.

1900년 12월에는 분원 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삼시간에 불길이 번져 회랑과 그릇을 쌓아둔 창고까지 태우고 꺼졌다. 이 화재로 지규식은 수만냥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듬해까지도 화재로 인한 손실을 안타까워했다.

## 2) 장인(匠人)의 확보와 백토·시목의 마련

자기를 만드는 도공(陶工)의 실력 여하에 따라 그릇의 품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수한 장인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민영화되기 이전까지 분원의 사기장(沙器匠)은 ‘세전(世傳)’을 강요받고 있었지만, 이시기 장인들은 자유로운 임노동자가 되어 임금의 수준을 따라 옮겨 다니고 있었다.

이 시기 지규식에게 고용되어 분원에서 그릇을 만들었던 조기장(造器匠)은 홍경호(洪京浩)·박문약(朴文約)·전창오(全昌五)·신성국(辛聖國)·김성로(金成老)·박광적(朴廣積)·김선희(金先喜)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홍경호와 박문약·김성로는 1898년 국왕이 내린 완문(完文)에 조기장으로 등록되어 있던 인물들로서,<sup>2)</sup> 원래 분원에 속했던 장인들이다. 홍경호는 명절이나 일이 있을 때면 양근 본가로 돌아가곤 했는데, 지규식은 그때마다 100냥 정도를 과세비(過歲費)나 여비로 주었다. 박문약과 김성로는 분원 사람으로 보인다. 박광적은 원래 건화(乾火)를 담당했던 사람인데, 이시기에는 조기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2) <완문(完文)>(규장각 古 4259-44).

김선희는 여주의 조기장이었고, 전창오는 여주 오금점(梧琴店) 조기장이었는데, 명망이 있었던지 분원에서 자주 불러들여 그릇을 굽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창오는 오금점의 그릇 만드는 일을 전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데리고 있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고향이 황해도인 신성국은 여주 오금점에 와서 그릇을 만들었으며, 분원에서는 누차 신성국을 불러들여 그릇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에 신성국은 분원과 여주를 오가며 그릇을 만들었으며, 지규식은 신성국이 여주로 갈 때면 수십냥에서 수백냥에 이르는 돈을 주었고, 그가 담수(痰崇)로 아플 때는 응답을 사다주기도 했다.

이와 같이 조기장의 확보는 자기의 제작과 판매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분원의 지규식은 조기장을 확보하기 위해 관권을 동원하기도 했고, 다른 곳에 소속된 조기장을 불러들이려 노력을 기울였으며, 때로는 조기장이 없어 주문을 포기하기도 했다.

1901년 4월에는 해주 맥현점(麥峴店)에 있는 박창호(朴昌浩)의 솜씨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데려오기 위해 궁내부 훈령(訓令)을 얻어 해주로 사람을 보냈는데, 박창호가 이미 다른 곳으로 가서 사는 곳을 알지 못하여 데려오지 못했다. 같은 달에 지규식은 왕실 진찬용 용준(龍樽)을 만들기 위해 변주현에게 소속된 장성화(張聖化)에게 만들도록 부탁했으나 변주현이 허락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 장성화는 장인들의 조직인 변방(邊房)의 두목으로, 1898년의 원문에서도 대표적 조기장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인물이다.

1901년 4월에는 기기국(機器局)에서 전선통(電線筒) 수천개를 만들어 달라고 하자, 기술자가 없어서 만들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같은 달에 송파에 사는 조기장 김남이(金南伊)를 데려왔으나, 실력이 신통치 않아 한탄하기도 했다. 지규식은 때때로 조기장을 비롯한 장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 음식과 술을 대접하곤 하였다.



도자기를 제조하는데 소용되는 백토(白土)와 시목(柴木)의 구입 또한 분원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였다. 이 시기 백토는 경기도 여주와 봉안(奉安)의 백토, 그리고 여주·강천(康川)의 수을토(水乙土) 등이 이용되고 있었다.

땀나무는 시상(柴商)들에게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1900년 10월에는 분원에서 사용할 땀나무를 우천강 시상들이 사갔으므로, 분원의 땀나무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 이에 분원에서는 우천 네거리에 광고문을 작성하여 붙이고 금단하도록 하고, 우천으로 가는 땀나무는 모두 분원으로 끌어들이며 매매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1901년 10월에는 영친왕궁에서 전령을 보냈는데, “각처 목상(木商)에게 장작을 분원으로 실어들이고 시세에 따라 매매하라”고 엄히 신칙하였다. 그러자 목상들이 이에 저항하기도 했다.

### 3) 인천~군산간 미곡무역 종사

번차회사 사원인 지규식은 1900년 윤8월부터 9월까지 2달 가까이 군산항에 머물면서 미곡무역을 위해 쌀을 대량 매입하였다. 그가 무곡(貨穀)에 나선 것은 회사 차원에서 인천우선회사(仁川郵船會社)와 협력하여 그를 책임자로 판단하여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

1900년 8월 21일 지규식은 “긴요하게 의논할 일”이 있으니 올라오라는 서울사원 안정기(安鼎基)의 편지를 받고 올라왔으며, 이튿날 분원 관련 일을 맡고 있는 주사(主事) 안영기(安永基)를 만났다. 안영기는 인천항에 우선회사(郵船會社)를 설립했다는 사실과 우선회사 서기를 청탁하려 한다는 말을 했으며, 이때 군산항으로 내려가 미곡 구입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면 지규식의 미곡무역은 회사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1900년 윤8월 2일에 지규식은 남대문 밖으로 나가 기차[火輪車]를 타고 인천 인뉴현(仁杻峴)에 이르러 객관에서 유숙하고, 이튿날 지전(紙錢) 332원과 백동전(白銅錢) 2천원, 그리고 단사(單絲) 20자[尺]를 준비하였다.

9월 4일 신시(申時, 오후 3~5시)에 지규식은 현익환(顯益丸)을 타고 인천항을 출발하여 5일 아침에 군산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오위장 이여삼(李汝三)에게 돈과 단사를 맡겨 두었다. 지규식이 타고 간 현익환은 이윤용(李允用)이 세운 인천우선회사의 배 이름으로, 현익환 외에도 인천우선회사는 창룡호(蒼龍號)·조주부호를 인수하여 구비하고 있었다.<sup>3)</sup>

그는 군산에서 일대의 쌀값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으며, 윤8월 7일에는 군산항과 논산의 곡가(穀價)를 상호 대비하여 기록하였다. 당시 군산항의 쌀값은 상미(上米) 1말에 4냥씩, 논산은 1말에 4냥 2전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윤8월 9일에는 논산지역을 방문하였다가, 12일에는 다시 강경환을 타고 군산항에 도착했으며, 며칠 동안 시세를 관망하면서 지냈다.

인뉴현(仁杻峴) 우선회사(郵船會社) 김희묵(金喜默) 참봉에게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부쳤다.

윤8월 20일에는 인천우선회사 김희묵(金喜默) 참봉으로부터 인천의 쌀값 시세를 알려주는 편지가 왔는데, 상미(上米)를 기준으로 매 섬당 32~33냥인데 점점 떨어지니 기회를 보아 주선하라고 하였다. 다음 날에는 인천항과 군산항의 쌀값 시세가 같아서 그간에 사들인 쌀이 본전에서 밀지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임을 탄식하기도 했다.

윤8월 23일에는 일본인들이 대량으로 쌀을 구입함으로써 군산항의

---

3) 《제국신문》 광무 4년(1900) 10월 11일.

쌀값이 올라갔으므로, 그는 쌀 구입하는 것을 중지하였다. 24일에는 김성원((金聲遠)을 강경에 보내어 작미(作米)를 독촉하였으며, 김성원은 다음날 쌀 61가마를 신고 왔다. 25일에는 온종일 쌀을 매입하였으며, 26일에는 엽전이 떨어져 쌀사는 일을 중지하였다. 29일에는 쌀 38가마를 샀다. 9월 2일에는 우선회사(郵船會社) 김희묵(金喜默)이 군산에서 떠날 때 백미 317가마를 보냈다.

지규식은 9월 11일 우선회사의 창룡선을 타고 출발하려 하였으나, 쌀을 작미하지 않아 빈손으로 올라갈 수 없어 상경일자를 미루었다.

지규식은 9월 20일 쌀 구입한 것을 주인과 회계하였다. 쌀을 산 것이 415가마 44,119냥 4전 5푼이고, 비용이 5,260여냥이 들었으므로, 가마당 125냥이며, 나머지 주인에게 봉상할 돈은 9,798냥 6전을 회계하였다. 그러나 기록상의 계산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9월 23일 지규식은 백미 98가마를 신고 한밤중인 자시(子時)에 군산항을 출발하여 이튿날인 9월 24일 밤 12시경[三更]에 인천항에 도착하여 하륙하였다. 군산항에서 인천항에 이르는데 만 24시간이 걸린 셈이다. 이로써 지규식은 윤8월 4일에서 9월 24일까지 50일간에 걸친 무미(質米)활동을 마무리하고, 다시 본연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 2. 사금융의 실패와 물가동향

이 시기 지규식은 각종 거래와 물화의 구입에 지전(紙田)·백동전(白銅錢)·동화(銅貨)·당오전(當五錢)·엽전 등 다양한 종류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다. 지전·백동전은 무미(質米) 거래 등 대형 거래에 사용하고 있었고, 일상적인 생활용품 구입은 주로 엽전을 쓰고 있었다.

서울에 한성은행과 대한천일은행 등이 설립되어 있었지만, 지규식은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거의 모두 사금융을 이용하

였다. 1900년초에 정은한(鄭恩汗)에게 1천냥의 돈을 빌리고, 12월에 11개월 이자를 합쳐 1,330냥을 갚았다. 1천냥에 대한 이자가 매월 30냥이었으니, 이자율은 1개월에 3푼(3%), 1년에 36%에 해당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01년 12월 회계를 보면, 3천냥에 대한 10개월 이자로 900냥을 지급하여 매월 3푼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또 2천냥에 대한 4개월 이자로 480냥을 지불하였는데, 이는 매월 6푼(6%)의 고리가 적용된 것이었다. 그 외에도 지규식은 5푼(5%) 변리나 장변(市邊)으로도 돈을 빌리고 있었다. 당시 민간에서 적용된 대출이자 는 매월 원금의 3~6% 정도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단순하게 연리로 환산하면 36~72%에 해당하는 엄청난 고금리임을 알 수 있다.

지규식은 자신의 집과 분원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서울·분원 일대의 물가 동향(1900. 윤8~11~1902. 8)

품 목		가 격	연월일
식 품 류	쌀	1되→5냥 5전	1901-0524
		1되→5냥 4전	1901-0604
		1말 6되→136냥[추미(麴米)]	1901-0629
		8말 8되 4홉→760냥 2전	1901-1104
		2말→200냥	1902-0504
식 품 류	보리	1섬→150냥	1902-0813
	배추	72단 →240냥	1901-0925
	쌀새우[白蝦]	1동이→100냥	1901-0925

품 목	가 격	연월일		
복 식 류	단사(單絲)	매 척(隻)당 30~40냥씩	1900-#0807	
	왜포(倭布)	1필→194냥	1901-0929	
	삼팔주 [三八紬]	6자→48냥(1자 8냥)	1901-0214	
	마른신	1결레→35냥	1900-1023	
기 타	체[鐵篩]	1개→14냥	1902-0219	
	담배	1근→6냥	1900-#0826	
	약제류	지황탕 1제	→102냥	1901-0214
		웅담 2품 중	→50냥	1901-0715
인삼 1근		→125냥	1902-0526	
임 금	흙 운반비	매 명당 10냥씩(짐꾼 5명)	1901-0417	
	가마꾼 삯	노자 10냥, 가마꾼 품삯 45냥 (분원→서울)	1900-1020	
	공전(工錢)	무명 100자 직조 공전	→25냥	1902-0506
	배삯	수을토 63섬 운반, 1섬→3냥씩 운반비	1902-0625	

\* 주 : 연월일 항목에서 '#' 표시는 윤달을 의미한다.

먼저 주식인 곡물류 값을 보면, 쌀값이 전 시기에 비해 많이 급등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01년 5월까지만 해도 쌀 1되에 5냥 5전 정도 하던 것이, 6월에 접어들면서 질이 좋지 않은 추미(麴米)인데도 1되에 8냥 5전씩 거래되고 있었으며, 1902년 5월에는 1되 가격이 10냥에 달하고 있었다. 1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쌀값의 폭등은 가뭄과 일본으로의 쌀 수출이 겹쳐지면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쌀값의 폭등세에 편승하여 무곡(貿穀)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지규식 또한 군산에까지 가서 쌀을 구입하고 파는 무곡활동을 하였다. 보리 거래가는 쌀값에 비해 매우 저렴하였으며, 1902년 8월 보리 1섬에 150냥이었다.

이 시기 자료에서 주목되는 것은 임노동자의 임금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1901년 4월에는 봉안에서 올라온 백토(白土)를 운반하는데 짐꾼 5명을 썼는데, 한 사람 당 품삯을 10냥씩 주었다. 당시 10냥은 쌀 2되 값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1900년 10월에는 가마를 타고 아침 일찍 분원에서 출발하여 해가 저물 때 서울에 도착했는데, 가마꾼 품삯으로 45냥을 지급하고 노자로 10냥을 주었다. 가마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들어야 하는데, 2명일 경우 새벽부터 해질 녘까지 가마를 메고 받는 돈은 많으면 1인당 22~23냥, 노자까지 합치면 27~28냥 정도에 해당되었다. 쌀값으로 따지면 1/2말에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 3. 외세 인식과 향촌조직 및 가정사

#### 1) 외세 인식과 근대문물 이용

당대 민간인의 황권과 외세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그는 고종황제와 황태자의 탄신일에는 신민이 경축하고 잔치를 벌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꺼이 황제를 위해 축하하였다.

지규식은 1895년 을미사변과 양근 일대의 의병활동을 지켜봐 왔지만, 일본에 대한 정서는 반일(反日)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가 군산에 있었던 1900년 9월 12일에 군산의 일본인들이 자국 황제의 탄신일을 축하하는 행사를 보고 지은 시에서 “천황이 길이 만수하기를

빈다(爲祝天皇萬壽長)”고 한 것을 보면, 일본의 대한 어떤 반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1901년 8월에는 일본이 중국 만주 일원을 점령하였다가 러시아에게 만주를 내주고, 대신 한국에 대한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었다. 1900년 9월에는 신문을 통해 중국 소식을 듣고 “중원 소식이 매우 슬프다.”고 하면서 열강에 시달리는 중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번자회사 사원이었던 그는 여러 가지 근대 문물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는 무곡(貿穀)사업차 군산을 내왕할 때는 기차와 화륜선을 이용하였는데, 서울에서 인천까지는 남대문 밖 화륜거(火輪車)정거장, 곧 남대문역에서 기차를 이용하였으며, 인천에서 군산까지는 증기선인 현익환과 창룡호를 이용하고 있었다.

군산에 머물러 있었던 1900년 윤8월·9월에는 신문을 보고 서울 소식과 세계사정을 접하고 있었고, 우편을 통해 우선회사와 소식을 주고받았다.

## 2) 분원 일대 향촌 조직과 풍경

원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양근군 남중면 분원리로 편입되어 있었다. 분원 일대는 1~8리(里)까지 8개 리로 나뉘어 있었으며, 지규식은 분원3리에 살고 있었다. 각 리마다 이회(里會)를 두고, 이임(里任)을 두어 마을 일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분원3리는 1901년 12월 이회를 열고 이취홍을 좌상(座上)에 임명하였다. 이때 이회에서 사람들이 “부유한 집 중 13명이 각각 40냥씩 내어 존본취리(存本取利)하여 동네 추렴의 밑천으로 써서 가난한 집들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하여 돈을 거두기로 약속을 정하고 회의를 마쳤다.

그리고 분원 일대 8리를 관장하는 대동회(大洞會)를 두고, 매년 12월에 동임(洞任)을 선출하여 분원 일대의 일을 맡겼다. 1901년 12월에 대동(大洞)의 임원을 개선하였는데, 먼저 8리가 각각 적당한 동장(洞長) 후보에 권점(圈點)하여 올리면, 그것을 집계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동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때 최고 점수로 1등이 된 함동희(咸東羲)에게 동장에 취임할 것을 의뢰하자, 함동희가 말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에 12월 28일 다시 동장 선출 건으로 동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정현도(鄭玄道)가 자원하여 동장이 되었고, 상유사(上有司)에 정원교(鄭元教)가 뽑혔다. 1902년 12월에는 정현도가 동장에서 물러났는데, 다시 차출할 방도가 없어 8리가 그 업무를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보면 이 시기 대동회의 동장이라는 직임은 권한이나 실권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분원의 향촌조직인 동회와 이회는 문제가 생기면 함께 모여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때로는 억울한 사람의 하소연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주기도 했다.

1901년 4월에는 변사인(卞士仁)이라는 사람이 신(申)씨 댁 묘자리 묘목[丘木] 일로 죄를 입었는데, 대동에 그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였다. 이에 동회를 열어 변사인과 산지기를 불러 놓고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변사인이 억울하게 당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동회에서 판결문에 해당하는 제사(題辭)를 써 주고 자리를 파하였다. 1902년 7월에는 석고(石鼓) 추림의 일로 남종면 5동임이 모여 추림, 분배의 일을 논의하였으며, 분원에서는 200냥을 거두어 보내기로 결정했다. 1900년 11월에는 수원의 승도패(僧徒牌)가 분원에 들어와 유희하자, 동중(洞中)에서 추림하여 100냥을 내려주었다.

분원 관할 군에서는 분원에 교졸(校卒)을 파견하여 잡기(雜技)하는 자들을 체포하여 붙잡아 가거나 전령(傳令)을 전달하기도 했다. 1901



년 12월에는 관아의 결세교리(結稅校吏) 김씨와 변씨가 “막중한 공금을 노름하는 사람들에게 빚 주고 비싼 이자를 받아 재산을 증식”하고 있었으며, 지규식의 아들인 영인(榮仁)에게도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거만을 떨었다. 이에 지규식이 장차 관아에 보고하려 하자, 그들이 애걸하고 사죄하였으므로 그대로 넘어간 일이 있었다.

일기에는 여성과 관련한 내용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1900년 11월에는 동문리에 사는 신규수(辛圭壽)가 병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아내를 두고 후사를 얻기 위해 재취하였는데, 상무소의 상무두령(商務頭領)이 “아내가 있는 사람이 또 첩을 얻었다”고 비난하자, 이에 항의하는 소장(訴狀)을 써 제출하기도 했다.

광주 남한산성 이씨의 딸은 양근 분원에 출가했다가 남편이 죽은 후 친정에 돌아와 과부로 살고 있었는데, 1902년 1월에 시어머니 제사 때문에 분원에 왔다가 김경숙(金京叔)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였다. 이에 그녀의 친정에서 관청에 고소하여 문제가 되었으며, 나중에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양근과 광주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 3) 자식 때문에 목놓아 통곡하다

이 기간 동안 지규식은 자식을 잃은 슬픔과 자식의 비행으로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겪었다.

1902년 4월 7일에는 신병(身病)을 앓던 둘째 며느리[次婦]가 죽었다. 둘째 며느리는 병이 난 후 친정과 시집 양가를 왔다 갔다 했다. 1901년 7월에는 병 조리를 위해 당호(堂湖) 친정으로 갔다가 11월에 돌아왔으며, 병세가 나아지지 않아 1902년 1월에 다시 친정어머니가 와서 딸을 데리고 갔다가 돌아왔으나 결국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다.

며느리가 죽은 지 10여일만인 1902년 4월 18일에 셋째 아들 영례

(榮禮)가 24세의 젊은 나이로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다.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해 왔던 영례는 갖은 약 처방에도 불구하고 속절없이 죽었다. 1900년 8월 막내 아들 수구(水龜)가 죽은 지 2년이 채 안되어 연달아 자식의 참변을 당한 것이다.

또한 큰 아들 영인(榮仁)은 노름·잡기(雜技)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였으며, 서울에서 국향(菊香)을 데리고 와 측실로 삼았다. 1901년 3월에는 함동헌(咸東獻)에게 돈 850냥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하여 살던 집을 빼앗길 처지에 놓이게 되자, 지규식이 갚아주었다. 1901년 12월에는 남한산성 석첨지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그릇 값 2천냥을 벽장 속 작은 상자에 봉하여 넣어두었는데, 영인이 몰래 훔쳐가 노름으로 탕진하여 버렸다. 이에 화가 난 지규식은 온 집안사람을 불러 놓고 집안형편의 어려움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영인에게 태장(笞杖) 수십대를 마구 때렸다. 그리고 오장이 타는 듯하여 목놓아 통곡하여 울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어찌 요임금이 불초한 단주(丹朱)를 두었을까?”라는 시를 짓고 남의 조롱거리가 된 가문의 현실을 한탄하였다.

그의 딸은 광주의 남한산성으로 시집을 갔는데, 자주 아파 속을 태웠다. 이에 딸자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병구완을 하기도 했다. 거기에다가 사위는 술버릇이 좋지 않아 딸의 속을 썩여 그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하였다. 지규식은 딸의 시집인 석씨가에서 2~3천냥에 달하는 돈을 월 3푼(3%) 이자로 빌려 쓰고 있었다. 이를 보면 딸의 시가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으로 생각된다.

다음 일기는 번자회사의 운영체제 변화와 지규식의 은곡점(銀谷店) 개설·운영, 위태로운 국가·사회에 대한 인식, 분원 일대 향촌사회의 조직과 운영, 딸과 친구의 죽음 등 다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박은숙**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 범례(凡例)

- 이 책의 국역 대본인 하재일기(荷齋日記)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도서번호는 ‘고 4655-44’이다.
- 이 책은 규장각 소장 하재일기 전 9책 가운데, 제7책(1900. 윤8. 1~1902. 8. 22)을 번역·탈초하여 원문과 함께 수록하였다.
- 이 책은 번역문·탈초문·원문의 순서로 편집하였다. 이 가운데 번역문과 탈초문의 쪽수는 연속으로 하였고, 원문의 쪽수는 별도로 매겼다.
- 번역은 원래의 뜻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직역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의역(意譯)을 곁들였다.
- 번역문 가운데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관직명과 전문용어 등은 ( ) 안에 한자를 병기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역사용어와 고어(古語) 등은 각주를 달아 해설하였다.
- 탈초문 가운데 원문에서 누락된 글자는 < > 안에 넣어 이해를 돕도록 하였으며, 알아볼 수 없는 글자는 ‘□’로 표기하였다.
- 원문은 규장각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인하였다.
- 원문의 잘못된 글자는 탈초문에서 바로잡았으며, 원래 글자는 그대로 두고 [ ] 안에 바로잡은 글자를 넣어 대비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원문의 원래 규격은 가로와 세로가 20.5×28.5cm이나, 본 책의 판형에 맞추어 축소하여 실었다.



## 목차(目次)

해제(解題) .....	3
범례(凡例) .....	19

### 국역

경자(1900) 윤8월 .....	27
9월 .....	38
10월 .....	51
11월 .....	56
12월 .....	61
신축(1901) 1월 .....	68
2월 .....	73
3월 .....	77
4월 .....	81
5월 .....	88
6월 .....	92
7월 .....	96
8월 .....	100
9월 .....	109
10월 .....	114
11월 .....	119
12월 .....	123
임인(1902) 1월 .....	129
2월 .....	133

3월 .....	137
4월 .....	143
5월 .....	148
6월 .....	151
7월 .....	155
8월 .....	159

### 탈 초

경자(1900) .....	169
신축(1901) .....	190
임인(1902) .....	230